

[나와 《길림신문》]

◎ 함길자

꿈을 이루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길림신문》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16년 되었다. 2009년 4월 23일, 《길림신문》 제6면에 실린 〈후회 없는 사업에 혼신을 바쳐 20년〉(글 리강춘)이라는 글은 평범한 시골 녀교원이었던 나에게는 특별한 영광이었다. 그 이후로 《길림신문》은 나의 참된 동반자가 되었고 매년 《길림신문》을 주문하여 꾸준히 읽어왔다.

나의 사적이 《길림신문》을 통해 소개되고 여러 매체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졌고 선배님들의 당부대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2000년대에 들어 우리 학교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듦과 해외로 나가거나 도시 학교로 전근하는 동료들이 많아졌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나도 망설임과 고민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2009년 6월, 나의 첫 대필 글 〈울고 웃는 인생 스토리〉가 《길림신문》에 실렸다. 꿈만 같았다. 자랑스럽고



저자 함길자

신나서 그 신문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읽곤 했다.

나는 점차 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는 대필이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수십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한족 친구들이었던 주묘, 당박이, 두소영, 왕훙... 조선족학교에서 발음과 일상용어를

어렵게 배우던 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며칠 밤을 지새우며 쓰고 고치기를 반복한 끝에 〈내 마음의 별들아...〉라는 첫 작품을 완성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제4회 《길림신문》 ‘인성교육 교원상’에 투고했다. 처음 쓰는 글이라 긴장했지만 다행히 《길림신문》에 실렸고 2010년 3월에는 우수상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였다. 글만 실려도 만족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그 기쁨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후 〈어린이마다 꽃처럼 피게〉, 〈미안하다 애들아〉, 〈생일선물〉, 〈나는 행복합니다〉 등 다양한 글들이 《길림신문》에 실렸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며 큰 위안을 얻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고 모든 일에서 행복을 느꼈다.

나는 사회에 뒤처지지 않는 몇몇한 인민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 시기에 부모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나

는 리향, 남호, 연미, 춘영 등 학생들의 눈물어린 이야기를 정리해 ‘인성교육 학생상’에 투고했다. 학생들의 글이 신문에 실릴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손을 잡고 교탁을 중심으로 빙빙 돌기도 했다. 학생 리향의 글 〈후회〉는 우수상(제4회)으로 선정되어 증서와 함께 상금을 받았다.

학교가 떠들썩했다. 나와 리향은 전교생 앞에서 표창을 받았고 나는 2년 연속 선진사업자로 선정됐다.

《길림신문》은 나의 글쓰기 취미를 키워주었고 꿈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2014년, 나는 오매불망 바라던 작가협회 회원증을 받게 되었다. 5년 사이에 《길림신문》을 비롯한 여러 간행물에 70여편의 수기와 보도기사를 발표했으며 2013년에는 연변작가협회 제3회 ‘가야하’ 인터넷 문학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는 1934년 학교창립 이후 86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천교령전 조선족학교 역사》를 출판해 학교에 남겼다. 이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전망대]

연변팀, 관중평원에서 첫 원정승 노려라!



제22라운드 연변팀과 상해가정회룡팀간 경기 한 장면 / 김파기자

홈장에서 상해가정을 1:0으로 이기며 4라운드 무승의 부진에서 탈출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이 9월 20일 저녁 7시에 섬서성 위남시 위남체육중심체육장에서 7승 6무 9패로 27점을 기록하고 10위를 달리고 있는 섬서련합팀과 격돌하게 된다.

섬서성 동부의 관중평원을 가로지르는 위하 남안에 자리잡은 위남시는 역사가 유구한 도시지만 섬서평을 처음 밟는 연변팀 선수들에게는 낯선 곳이다. 그러나 프로축구에서는 오직 관건적인 경기만 있는 신념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 요청된다.

섬서련합팀은 비록 지난 경기에서 료녕팀을 3:1로 크게 이겼지만 실력을 따져보면 연변팀의 남은 5개의 원정경기중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된다.

섬서련합팀은 지난 제19라운드에서는 중경동량룡팀에 0:3, 제12라운드(보충경기)에서는 광둥광주표범팀에 1:2로 패하였으나 제22라운드에서는 1위 료녕철인팀을 3:1로 역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섬서련합팀은 ‘기복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료녕철인팀의

9번 음벤자(20경기 21골, 1도움)와 10번 구니모토(22경기 3골, 15도움)가 결정했기에 절대 강팀이 아니라 ‘이발 빠진 호랑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거기에 섬서련합팀의 중앙발동기로 불리는 사지위가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연변팀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팀의 전력이 약화되었다. 이 자리를 20살의 위지위가 메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반대로 연변팀은 왕봉과 황진비의 복귀로 수비력을 강화하고 공격력을 높이고 있다. 왕봉, 누네스, 서계조가 수비선을 지키고 김태연, 박세호, 리룡, 왕자호 등이 중원을 장악하여 공격선에 있는 황진비, 포부스, 우카추쿠의 뒤를 받쳐주면 태고연한 관중평원에 동북호랑이가 강림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아무튼 료녕철인을 잡고 사기가 잔뜩 올라 있는 섬서련합팀을 상대로 치밀한 수비와 신속한 패스를 통해 지난 대상해가정회룡 경기에서 보여준 파상공격을 이어간다면 상대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5-3-2 또는 4-5-1 전술을 무너뜨려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첫 원정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태국기자

길림대학과 길림농업대학, 농학 전공 국가 일류 인증 통과

교육부 교육품질평가센터는 최근 중국농업대학 동물과학 전공 등 70개 농학 분야 전공에 대한 3급 인증 결과를 발표, 길림대학과 길림농업대학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 농학 분야 전공 인증으로 알려졌다.

전공 인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품질 보증 제도로 우리 나라의 ‘5위 1체’ 품질 보장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전문 인증을 실시하는 것은 턱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리행하고 고등학교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전문 품질 향상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교육품질평가센터는 2024년 10월에 〈일반 고등학교 농학 분야 전공 3급 인증 사업 지침(시행)〉

을 발표했다.

지침(시행)에 따르면 3급 표준은 ‘우월성 추구’에 초점을 맞춘 ‘지향적’ 인증으로 량적 및 질적 결합을 이루고 있다. 주로 국가급 일류 전공 건설 지점을 대상으로 전공 건설의 기준을 설정하고 전공이 고등교육 종합 개혁의 새로운 조치와 경로, 방법을 탐색하도록 유도하여 고등교육 종합 개혁을 촉진하고 뛰어난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관련 전공은 ‘국가급 일류 전공 인증’만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중대 전략 공정과 플랫폼에 참여하는 ‘최상’ 전공은 국가 전략 인증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합격할 경우 국가급 일류 전공 인증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인민넷 - 조문판

2025년 ‘춘성컵’ 장춘축구 슈퍼리그가 9월 13일 오전 10시, 장춘시 관성구 단산학교 경기장에서 관성구와 남관구의 치열한 경기로 시작됐다.

이번 대회에 조별 예선에는 16개 현(시)구 대표팀이 참여, 4개 조로 나뉘어 경쟁을 벌인다. 추첨을 통한 조편성 결과 A조는 관성,련화산,이도,남관으로 구성되었고 B조에는 중한(장춘)국제협력시범구와 덕혜 등이 포함되었으며 C조에는 쌍양,조양 등

강호들이 모였는가 하면 D조에는 농안,공주령 등 대표팀이 자리했다. 약 533명의 선수가 56경기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조별 예선은 매주 주말 휴일에 진행되며 10월 1일 조별 예선이 종료된 후 각 조 1위 팀이 4강에 진출해 우승을 다투게 된다. 최종 우승팀은 연변주 축구리그 챔피언과 맞붙어 길림성 축구의 최고 영예를 위해 경쟁한다.

13일 오전에는 A조의 두 경기가

관성구 단산학교와 빙설타운(小鎮)축구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B조, C조, D조 경기는 오후 1시와 3시에 시작되었다.

올해 ‘춘성컵’은 규모와 형식이 업그레이드되었는데 처음으로 현(시)구,개팔구를 단위로 참가하도록 하여 기존의 팀 자유 구성 방식을 탈피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16개 현,시,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홈 앤드 어웨이(主客场) 방식으로 두차례 경기를 치르

게 된다. 9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16개 경기장에서 총 56경기가 예정되어있으며 결승 단계에서는 각 조 1위를 차지한 4개 팀이 홈 앤드 어웨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4라운드에 걸쳐 총 8경기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관성구대표팀과 남관구대표팀의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고 현장 관중들은 끊임없는 응원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남관구대표팀 장소림 주장은 “우리 팀은 학생과 사회각계 직장인으로 구성되었다. 설립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기 형식이 매우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우리도 좋은 성적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성구대표팀 리백부 감독은 “매우 기쁘다. 장춘시체육국과 장춘시축구협회에 감사드린다. 덕분에 축구애호가들이 이번 대형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실력과 품격을 뽐내며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1972년에 시작된 ‘춘성컵’은 도시 축구의 중요한 기억을 담고 있는 대회로 ‘아태 96 황금세대’의 핵심이었던 두진우(杜震宇) 등이 여기서 출발하여 축구 생애를 시작했다. 현재 중국축구 엘리트리그에서 활약중인 장춘희도축구구락부와 전국 비치사커(沙滩足球) 챔피언을 차지한 장춘성신팀도 이 대회를 거치며 성장했다. 이제 ‘춘성컵’은 장춘 아마추어 축구가 프로 무대로 나아가는 ‘요람’으로 자리잡았다.

/ 길림일보



관성구대표팀과 남관구대표팀간의 경기 한 장면

/ 장춘석간

图说
我们的
价值观

辛勤劳动 万事如意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河南舞阳 周松晓作